

백학 타고 백양에 노닐다

모두의 쌍계루 자리

일시 2023. 7. 1. 토 15:00 - 17:30

장소 백양사 쌍계루 일대

대상 일반인(100명)

내용 15:00 ~ 15:30 ◦ 참여자 등록 및 전시 관람

15:30 ~ 16:10 ◦ **백학봉 · 쌍계루 음악극**

바람이 머무는 곳, 물길이 만나는 곳

16:20 ~ 16:50 ◦ **산사 인문학 토크**

백학봉 · 쌍계루 이야기

17:00 ~

◦ **전시 & 체험**

백양사 문화재 전시

부채에 담아보는 시 한 수

천진암 - 다과



신청 바로가기

주최 장성군

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암산 백양사 사단법인 광주문화나루

후원 문화재청

문의 장성군 문화관광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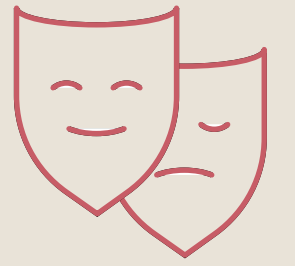
061-390-7226

(사)광주문화나루

062-672-6966



백학봉 · 쌍계루 음악극



바람이 머무는 곳, 물길이 만나는 곳

수많은 문인들이
발길을 멈추고
노래한 그 곳

이야기꾼 보부상을 만나 들어보는 포은 정몽주와 삼봉 정도전의 이야기...
백학봉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두 개의 물길이 만나는 이 길 위에서 이야기꾼
보부상과 함께, 우리는 포은 정몽주와 삼봉 정도전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. 시간을
넘나들며 떠나는 여행, 야외 음악극 '바람이 머무는 곳, 물길이 만나는 곳'입니다.



작·연출

최민



작곡 · 피아노

이승규



포은 정몽주

바리톤 권용만



삼봉 정도전

바리톤 김종우



보부상 A

테너 장호영



보부상 B

배우 이승학

산사 인문학 토크

백학봉 · 쌍계루 이야기



화합과 조화,
교류와 소통의
자리

백학봉과 쌍계루는 사상과 종교,
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화합과 조화의
공간이었습니다. 이 뜻 깊은 자리에
오늘의 우리들이 모여, 옛 사람들의
이야기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
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



김병조

방송인, 한학자



무공스님

백양사 주지



전시 체험

- 백양사 문화재 전시
- 부채에 담아보는 시 한 수
- 천진암 - 다과

